하루 50만 '겨울왕국' 열풍

metro
메트로 2014년 1월 27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김신욱 홍명보호 원톱 '찜'

법원·검찰 갈 때마다 '휠체어맨'

풍성한 과일… 조상님 뵐 면목 있겠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닷새 앞둔 26일 오후 [illegible]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 및 제수용 과일을 고르고 있다. 이번 설 차례상 비용(4인가족 기준)은 전통시장 20만4000~20만6000원, 대형유통업체 29만2000~29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 재계 오너 '도덕불감증' 이젠 바꾸자

수천, 수만 명의 임직원들 앞에서 위풍당당하던 유명 기업의 CEO가 어느날 갑자기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사앞에 하차한다. 심지어 몇몇은 휠체어를 타거나 아예 응급환자용 침대에 누워서 조사를 받으러 검찰의 문턱을 넘는다.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국내 굴지 기업 CEO들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재벌 총수는 물론,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상대해야 할 거대 금융사까지 CEO의 불법과 탈법은 끊이지 않는다. /[illegible] 기자 sw@metroseoul.co.kr

비자금 조성·기업승계 위해 탈·불법 밥먹듯…금융사도 마찬가지
돈 앞에 약한 정치권·사법부 솜방망이 처벌도 범죄 관행화 부추겨

이들은 왜 자꾸 법을 어기는 것일까? 재벌 총수의 범죄는 배임과 횡령, 분식회계,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 또는 불법 자금 조성과 기업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경유착에 따른 비자금 조성 및 뇌물 공여는 대부분의 기업이 끊지 못하는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금융그룹도 마찬가지다. KB금융, 산은지주 등 금융지주사 회장은 대부분 정치권과 밀월관계를 맺어 왔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 등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들의 특징은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부분 재벌 2세로 가업을 이어 받았거나, 교수나 정치인으로 있다 정권과의 유착으로 금융지주 회사에 CEO로 임명돼 전문지식없이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탈법행위에 무감각하는 것이다.

금전 앞에 약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이중잣대도 재벌총수나 CEO들의 범죄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분 CEO들은 수사 중이나 이후에도 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재벌 총수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기업범죄를 저질러도 당연히 집행유예이거나 사면을 받는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며 "마치 재벌들에게는 법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에서도 재벌에게는 법이 통용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재벌 일가의 기업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훼손으로 선의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너무나도 크다"며 "기업을 자신의 사유물로 생각하고 전횡하는 재벌은 오로지 자신들의 부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은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닷컴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 받았다.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낮은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횡령, 배임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계속 풀어주고 사면복권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재벌 총수나 CEO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도덕적인 소양과 함께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KB금융의 예를 들면서 "KB금융의 경우 어윤대 전 회장 때부터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진 것 같다"며 "CEO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정치권과 결탁하다 보니 직원들도 비리에 얽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도쿄 지점의 경우도 어윤대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본다"며 "도덕적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감시기구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속되는 CEO들의 범죄와 비리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알림

'을의 눈물' '착한 갑' 제보 기다립니다

건전한 한국 사회 구축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들이 곳곳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남양유업 사태 등 지난해 불거진 '갑질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본지는 연중 기획으로 '다시 공정사회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진 '불공정'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갑을 관계에서부터 편의점 사장과 아르바이트 사원의 불공평한 진실까지 공정사회를 위한 과제를 진단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사회'로 가는 데 있어 좌표를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공정사회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는 물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도 집중 소개해 공정사회의 참모습을 조명합니다.

메트로신문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경험과 목격담 등 '공정'과 '불공정'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메일 inform@metroseoul.co.kr

metro

금융사 텔레마케팅 3월까지 전면 중단

금융사는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전화영업(텔레마케팅)' 행위를 이번주부터 오는 3월까지 전면 중단해야 한다.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슈랑스, 보험 모집 등에 모두 해당하며 비대면채널이 유일한 온라인 보험사만 빠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연중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는 이번 주부터 금감원이 제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자체 점검에 돌입하게 된다"며 "보안 규정 준수 여부, 정보 유출의 기록 관리 실태 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illegible]

미 "한국 대통령은 도청 제외"

NSA 가까운 동맹국 포함

무차별적인 도청 논란을 빚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 대한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대통령도 NSA 도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소식통은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한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NSA 개혁안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동맹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해서는 도청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발표를 문맥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은 NSA 개혁으로 도청에서 제외되는 동맹국 정상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수준으로 NSA 개혁안을 우리측에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 /김연순기자

지방공기업 CEO·임원 보수 동결된다

올해 지방공기업 CEO와 임원의 보수가 동결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CEO와 임원의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예방을 위해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특수목적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이중지원,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은 폐지하도록 했다. /김연순기자

때깔 고운 부부 김한길(왼쪽) 민주당 대표와 부인 최명길씨가 25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설맞이 민주당 홍보 영상을 촬영하며 맞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어린이집 절반 교사·도우미 지원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집 3314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이는 시내 어린이집의 50%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만 지원하던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서울형 이외 630곳의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한다며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유형을 선택해 1명을 채용,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하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비담임교사에게 105만원, 보육도우미에게 80만원이 지원된다. 연장 근무는 서로 협의 하에 가능하며, 추가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한다. /김수현기자

우체국 설 소포 2배 늘어

설을 앞두고 우체국에 설 선물소포들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서울동작우체국에는 평소 물량의 2배에 가까운 1만 2000통의 선물소포가 밀려 들어왔다.

서울지방우정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9% 늘어난 130만여 통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성북우체국에는 평소 물량의 2.5배인 1만 4000통, 서울노원우체국에는 평소 물량의 2.5배인 1만 6000통의 선물소포가 쏟아졌다.

무거운 발걸음 26일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충남 부여의 한 종계장 안으로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닭을 살처분하기 위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Standstill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전국 '스탠드스틸' 검토

고병원성 AI 닭 농장 포함 전국 4개 도로 확산…100만 마리 살처분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을 비롯해 전국 가금류 농가가 초비상 사태에 빠졌다.

26일 충남 부여군 홍산면의 종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또 경기 화성 시화호 주변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과 전남 해남 씨오리농장에서 발생한 AI도 고병원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농가에서 처음 신고된 'H5N8'형 AI 바이러스는 전남과 전북, 충남, 경기 등 4개 도 18개 농장에서 확인됐다. 닭 농장 한 곳도 포함됐다.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도와 시·군 경계지역에 초소를 설치,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방역거점 초소 99곳과 이동통제 초소 91개소 등 190여 곳으로 확대했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64곳을 설치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100만 마리에 육박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반경 3km까지 살처분하기로 해 추가로 120만여 마리를 땅에 묻을 처지이다.

이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책 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비상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 대목이라 부담스럽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정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석대건기자 mildm@metroseoul.co.kr

"장성택 일가 어린 아이까지 모두 처형"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일가 친인척 대부분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이뤄졌다"며 "장성택의 친인척은 어린 아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과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장성택의 조카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와 그의 아들인 20대 중반의 대학·대응 역시 지난해 12월 초 평양으로 소환돼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은 3남2녀 중 삼남으로 두 형인 장성우와 장성길은 군 장성으로 활약하다 지병으로 사망하고 두 명의 누이만 남았지만 그 자녀가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서 친인척 수가 적지 않다.

장성택의 친인척들을 끌어갈 때 저항하면 아파트 주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권총으로 사살하기도 했다고 이들은 말했다.

다만 장용철의 부인 박춘희 등 장성택의 일가에 결혼해 들어온 여자의 경우에는 강제 이혼을 시켜 친정 가족들과 함께 산간벽지로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기자

정부, 이산 상봉행사 내달 17일 이후 추진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수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우리 정부 입장과 상봉을 위한 실무협의 방법 등을 담은 대북 전통문을 27일 전달한다.

전통문에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 수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하면서 실무협의 방법을 담을 예정이다. 우리 측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 달 중순께 상봉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의 '명절'인 김정일 생일(2월 16일) 이후인 17일부터 일주일 가량을 유력한 상봉 가능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월 중순 상봉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김연순기자

바빠진 적십자사 26일 서울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 접수처에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장님의 처벌 공식 '징역 3년·집유 5년'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2 유독 관대한 재벌범죄

중대 범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나중엔 사면
사실상 종신형 선고하는 미국처럼 가중처벌 필요

재벌총수와 CEO등의 판박이 불법 행위는 정치권 로비를 위한 비자금 조성과 후계자를 둘러싼 경영권 승계로 압축된다. 여기에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회사 자금 유용과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등 기업을 활용한 자산 불리기 등도 포함된다.

최태원 SK회장은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재벌 총수 중 하나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SK텔레콤, SK C&C 등 2개 회사로 부터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을 과다 지급해 빼돌린 돈을 이용해 2005~2010년 까지 139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가장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CEO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 어음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히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 회장이 동양그룹이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CP를 계속 발행하도록 지시해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현 회장이 부실한 계열사를 담보없이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28일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0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하고 900억원대의 그룹 자산을 횡령한 혐의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CJ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 자산 96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을 매입하면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재벌 총수의 범죄 논란에서 가장 강렬한 사건을 일으킨 CEO는 역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은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했고, 구본엽 전 LIG 부사장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본엽 부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6일 열린다.

재벌 총수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제출했던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자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엔론기업의 전 CEO가 분식회계로 종신형에 가까운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과 대비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규모나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더 재벌 총수들에 대한 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민주화로 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기자

그래픽 박상철

새 학기엔 새 학용품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초등학생들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서울시내 주요도로 29일 오후 가장 막힐 듯

전통시장 주변 등 정체 극심

설 연휴 동안 서울 시내 주요도로는 29일 오후와 다음달 2일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설·추석의 교통 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29일 오전부터 성수품을 사려는 차량으로 인해 경동시장과 가락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도로 정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26일 밝혔다.

오후 2시부터는 시내 주요 구간의 차량이 늘고, 5시부터는 퇴근과 겹쳐 대부분 구간이 출근길 수준으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명동, 광화문 등 도심과 주요 백화점, 마트, 터미널 주변이 차량이 몰릴 전망이다.

시내도로 소통정보는 다산콜센터(12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topis.seoul.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빠른길'과 '서울교통포털'에서 실시간 제공된다.

/김민준기자

성신여대 등록금 3년째 인하

성신여대는 올해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0.35%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2012학년도 2%, 지난해 5%에 이은 3년 연속 인하다. 대학측은 위원회의 예산 절감 요청을 수용해 각 부서별로 올해 예산을 10%씩 자율적으로 추가 절감하고 소모성경비를 대폭 삭감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기업가정신센터 현판식

덕성여자대학교가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내 차연관에서 한국여성기업가정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홍승용 총장, 문애리 교무처장, 허인섭 대외협력처장, 신은수 산학연구처장, 김진우 종합인력개발원장을 비롯해 함철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구사일생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납치됐다 사흘 만에 풀려난 한석우(가운데) 트리폴리 코트라 무역관장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부모님의 축하를 받고 있다. 그는 "한국에 오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노숙인 밥값으로 '카드깡'

쉼터 대표가 쌀 구매한 것처럼 꾸며 4년간 억대 보조금 빼돌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노숙인 쉼터 대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에 카드로 쌀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대금을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총 75차례에 걸쳐 급식보조금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3년 서울시와 '관리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억원 상당의 급식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그는 한달에 한 두차례 식자재 납품업자 심모(51)씨로부터 140만~190만원어치 쌀을 구매 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생활비·개인 빚 갚는데 사용

이렇게 빼돌린 보조금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썼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심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까만 튀김옷 입혀 '흑형 치킨'

이태원 주점 인종비하 논란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특정 인종의 피부색을 연상시키는 '흑형치킨'(사진)을 판매해 인종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흑형치킨'은 일반 치킨과는 다른 검은색 양념의 튀김 옷을 입힌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19년째 살고 있다는 한 외국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할 말이 없다. 이 술집 주인은 제 정신인지 궁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26일 한 블로거는 "'아 치킨은 흑인은 까맣다'라는 공식을 가지다 붙인 상표인데 한단 어겠만 ...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니 yellow(황인종), red(미국 원주민) 등 피부색 지칭 표현은 인종차별 및 비하를 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점 관계자는 "심각한 의미를 담아 붙인 이름은 아니다"며 "흑인들도 와서 즐겨 주문해 먹고 있으며 치킨 이름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다혜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사진) 할머니가 26일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황 할머니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운명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목동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8일 강서구민장으로 엄수된다.

황 할머니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워 모은 돈 총 1억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했고,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3000여만원을 장학회에 기탁하는 유언을 남겼다.

황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55명으로 줄었다.

/윤다혜기자

장애인들 겨울스포츠 체험 26일부터 3일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꿈나무·신인선수 동계스포츠 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이 각종 동계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2018 평창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위한 선수발굴의 장으로 활용되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89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400만원 받고 불륜현장 위치추적

위치추적과 미행 등으로 불륜 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불법 심부름센터 업주와 의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6일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조사 대상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불법심부름센터 업주 안모(50)씨를 구속하고 김모(4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에게 뒷조사를 요청한 A(49·여) 등 의뢰인 17명도 불구속입건됐다.

안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의뢰인들에게서 건당 30만~400만원을 받고 배우자나 애인의 불륜 현장 등 위치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해 21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다혜기자

서울시 표창받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강교량에 자살예방상담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 서울시장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은 유석희(왼쪽) 이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상을 받고 있는 모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어르신 생활터 방역 서비스

서울시 도봉구는 친환경 방역서비스를 실시하는 '어르신 클린 생활터 방역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방역팀 2개조를 투입, 140개소의 노인 생활터를 2개월에 1번씩 소독한다.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서울시 금천구는 설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등은 119 서울건강콜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120다산콜센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바람난 대통령 "동거 끝났다"

애인 엘리제궁 불러들일지 '올랑드의 선택' 주목

차기 프랑스 퍼스트레이디는 대통령과 염문을 뿌린 여배우가 될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공식 결별했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의 이별 소식을 전하며 최근 스캔들을 일으킨 줄리 가예를 엘리제궁의 새안주인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 10일 연예주간지 클로저는 올랑드 대통령이 가예와 사귀고 있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 충격으로 트리에르바일레는 일주일 넘게 병원에 몸져 누웠다. 올랑드-트리에르바일레 커플은 결국 가예 때문에 7년 간의 동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곧바로 가예를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으로 불러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는 엘리제궁에 퍼스트레이디가 없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 인사들이 그에게 당분간 독신남 대통령으로 남아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프랑스 국민도 퍼스트레이디의 '존재감'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여론조사기관 BVA의 최근 설문에서 프랑스인의 54%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전쟁국에 위안부 당연"

日 NHK 신임회장 "독일·프랑스에도 있었는데 한국만 강제연행 주장" 논란

"전쟁을 했던 어느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모미이 가쓰토(70) 신임회장이 2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이 뒤집어졌네 설을 앞두고 26일(현지시간) 일본 요코하마의 대형 수족관 '시 파라다이스'에서 펭귄들이 한자 복(福)이 쓰여진 붉은색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다. /AFP 뉴시스

모미이 회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쟁 지역에는 (위안부가) 있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도 있었다"면서 "한국이 일본만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하니까 이야기가 복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상하라고 하지만 이미 일한조약으로 마무리 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이상하다. 강제 징용 보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미이 회장은 NHK가 외국 시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방송을 통해 독도, 센카쿠(중국명 디오위다오)열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을 (NHK가) '왼쪽'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NHK 보도와 정부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총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참배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모미이 회장의 이번 발언은 방송 사업자에게 '정치적 공평성'을 의무화한 일본 방송법이나 공영방송인 NHK의 입장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NHK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한 내각 각료는 "언론사 최고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실언"이라면서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모미이 회장은 규슈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미쓰이 물산에 입사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부터 정보기술서비스업체인 일본 유니시스에서 사장과 고문 등을 지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화질 10배 DMB 세계 첫 상용화

KT, 삼성전자와 LTE 멀티캐스트 기술 개발 완료… 황창규 회장 취임 선물?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창규 KT 회장 후보의 공식 취임 선물인가.

KT는 27일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LTE 멀티캐스트 기술(eMBMS) 개발을 완료하고 올레 LTE 플레이 라는 이름으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LTE eMBMS'는 대규모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특정 지역에 운집한 다수의 가입자들에게 일반 DMB 대비 10배 수준의 HD급 동영상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LTE 기술이다.

이번 올레 LTE 플레이 서비스 상용화로 KT 고객들은 올레tv모바일 외 고품질 영상 2개 채널을 데이터 이용료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LTE 가입자가 몰려 네트워크 과부하가 예상되더라도 고객은 해당 채널을 끊김, 지연 등의 품질 저하없이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황창규 KT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과 맞물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황 회장의 향후 역할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황 회장 취임 후 삼성전자의 타이젠폰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KT-삼성전자 전용 단말기 출시 등 모바일 사업 부문에서 양사 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양사는 'LTE eMBMS 상용 서비스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 LTE 사업자와 협력해 LTE eMBMS 솔루션 및 단말과 상용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하고, 이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eMBMS 기반의 모바일 IPTV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LTE eMBMS 서비스 상용화는 지난해부터 양사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KT는 서비스 플랫폼과 올레tv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고, 삼성전자는 단말에 eMBMS 기능 탑재와 관련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함께 구현했다.

이 서비스는 27일부터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갤럭시노트3 고객이 올레tv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앙사는 서울 송파구 지역에서 우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4월 이후 단계적으로 이용 가능 단말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필재 KT T&C부문 Product 2본부장은 "KT와 삼성전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LTE eMBMS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제휴 협력을 통해 고품질 영상, 음악 등 광대역 LTE-A 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ysl403@metroseoul.co.kr

아파트 수납공간의 진화

아파트가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효율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세대 내 수납공간의 발전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넘어가며 작은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특화공간이 경쟁적으로 출시됐기 때문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대 내 숨은 공간을 찾아 붙박이장으로 활용하는 아파트 평면 설계가 잇따르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이사를 하면서 힘겹게 장롱을 나르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갖고 있던 장롱마저 버린 채 이사하는 집들이 느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구전문 업체인 한샘 집계 결과 지난해 옷장 관련 매출은 줄어든 반면, 드레스룸 관련 가구 매출은 전년 대비 50% 정도 늘었을 정도다.

거실과 방에 비해 공간이 넓지 않은 주방과 현관의 숨은 공간 활용 사례도 증가 추세다. 주방 벽면 전체를 벽장으로 꾸미고 별도의 식료품 저장창고인 팬트리를 배치하는가 하면, 현관에는 신발장 외 시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특화 서랍장을 배치하는 설계가 유행이다.

실제 오는 2월 반도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할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은 전용면적 59㎡ 타입으로 김포한강신도시 분양 당시 주목 받았던 4Bay 특화평면을 업그레이드해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포스코건설 '하남 더샵 센트럴뷰'는 주방에 다이닝 오픈 수납장을 구성, 가족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옥기자 ssoc@metroseoul.co.kr

"신흥국 불안 장기화될수도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여나 뮤지엄에서 시민이 각국 화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강남·지방 재건축 햇볕 든다"

금융가 사람들

■ 메리츠증권 김형근 연구원

올해 국내 주택시장은 서울 강남 지역이나 지방의 오래된 아파트의 사업성 있는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형근(사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작은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재건축 예정지 중에서 사업성이 높아진 곳이 생겨날 것"이라며 "종전에 조합원들이 34~37평을 주로 선호했다면 최근에서 24~27평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재건축 시 더 많은 세대 수를 지어 올려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분양이 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분담액이 줄어들어 부담도 덜어진다.

김 연구원은 "올해 건설사들은 그동안 확보해놓은 재건축 등 아파트 물량을 평소의 2~3배 늘어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수년째 바닥을 친 주택시장에서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높은 곳 위주로 물량을 배소하며 자금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8년부터 약화되 온 국내 주택경기는 저금리 기조에 지난해부터 서서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김 연구원은 다만 "두꺼운 전세 수요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을 구입하기보다 일단 전세로 들어가 시장의 흐름을 관망하려는 수요자가 아직 많아 매매가 살아나는 정도가 주춤한 것이다. 국내 전세시장은 250조원 규모다.

김 연구원은 "일본 주택 건설사들이 지난 10여년간의 장기 부동산 침체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70조원 규모로 활성화된 임대시장 덕분"이라며 "국내 주택시장과 건설사 실적 회복을 위해 임대 위주의 시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market index (24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1940.56	(-7.03)
코스닥	529.31	(-2.41)
금리	2.86	(-0.04)
환율	1079.50	(+4.50)

뉴스&뉴스

카드사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

●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을 악용해 스미싱 사기범들이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사기는 고객정보 없어도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사기 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고객정보유출 이후 스미싱 문자가 1~7일 사이 2건에 불과 했지만 8~21일 751건으로 급증했다. /박정원기자

이재현 부회장 "손익 최우선"

● 이재현 동부대우전자 부회장은 2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광주 소재 인재개발원에서 2014년 전략회의를 열고 "전사자원에서 모든 업무의 우선순위를 손익과 캐시플로우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접근방식과 차원이 다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2014 전략회의'에는 임원과 국내외 영업 및 생산 법인장, 사업담당, 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균기자

LGU+ LTE 선택형 요금제

● LG유플러스는 개인별 스마트폰 이용 패턴에 따라 음성, 데이터, 문자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LTE 선택형 요금제'를 27일 출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LTE 선택형 요금제'는 음성의 경우 100분, 200분, 300분, 400분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고 데이터는 250MB, 500MB, 1GB, 2GB, 3.5GB, 7GB 등 6종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재영기자

로또복권 제583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12	14	33	40	41	2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일치	3,580,558,719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1,643,192
3등	5개 숫자일치	1,455,359
4등	4개 숫자일치	50,000
5등	3개 숫자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5층
TEL 02)721-9800, FAX 02)739-1551
발행인 겸 대표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71
2003년 6월 9일 창간/일반일간 서울특별시 가 00000

놀듯 영어공부하는 앱

SK텔레콤 'T무비영어' 인기 드래곤플라이·NXC 등 출시

사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 관해서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열기를 자랑하는 국내 시장에 모바일 혁신이 일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바일 플랫폼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영어 교육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총싸움 게임 '스페셜포스'로 유명한 드래곤플라이는 최근 영어교육 앱 8종을 한 달 새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이들 앱은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인 LEAD21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고 퀴즈·퍼즐·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를 하듯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Who Ate RUFF's Food'이라는 앱의 경우 귀여운 강아지 'RUFF'의 밥을 훔쳐먹은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다섯가지 감각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을 전달한다.

'My Perfect Home'은 길을 잃어버린 다람쥐의 집을 찾아주는 내용으로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어휘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넥슨 지주사 NXC는 '캐치잇 잉글리시'로 재미를 보고 있다. 출시 3주 만에 교육용 앱으로는 이례적으로 1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SNS 기반의 영등 학습을 중심으로 게임을 즐기듯 공부를 할 수 있어 동기부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고 답을 맞히며 영어문장카드를 수집하는 방식이라 지루함을 덜고 자연스레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 특히 실용회화 위주로 구성된 콘텐츠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20~30대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모바일 영어학습 시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출시한 'T무비영어'도 출시 4개월만에 누적 회원수 10만 명을 돌파했다.

T무비영어는 영화·미국드라마를 감상하며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서비스로, 딱딱한 영어학습 방식에서 벗어나 영한 자막 전환·구간반복·영화 속 주요 영어 표현 보기 등의 기능을 이용해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영화와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를 월정액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SK텔레콤이 지난해 출시한 'T무비영어'가 10만 회원수를 돌파했다. SK텔레콤 제공

춘절 맞아 중국인 관광객 속속 입국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중국의 춘절 연휴를 앞두고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작년 영업익 36조 '사상 최대'

삼성전자가 2013년 4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59조2800억원, 영업이익 8조31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매출 228조6900억원, 영업이익 36조7900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4분기 원화강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 불안한 경제 상황 아래 일회성 비용인 8000억원 규모의 '삼성 신경영 20주년 격려금'과 7000억원 규모의 부정적 환영향을 감안하면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시장 호조로 실적 강세를 지속했고 DP(Display Panel)는 세트 사업의 재고 조정에 따른 OLED패널 판매량 감소와 TV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CE(Consumer Electronics) 부문은 계절적 성수기 속 TV 판매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으며, IM(IT & Mobile Communications) 부문은 연말 재고 조정과 계절적 마케팅 비용 증가로 실적이 감소했다.

지난해 유럽 경기 회복 지연과 신흥국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됐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무선 사업의 성장세 지속과 메모리 반도체와 OLED패널 등 부품사업 개선 등에 힘입어 매출은 2012년 대비 14% 증가, 영업이익은 27%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이머징 국가의 통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한 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1분기의 경우 IT의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부품과 TV사업 중심 수요 위축 영향으로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하균기자 kuns@

직장인 설 지출액 36만원

직장인의 설 명절 고민 1순위는 선물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직장인 982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우려하는 것을 설문한 결과 '선물·용돈 등의 지출'이 33.7%로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잔소리 등 정신적 스트레스'(16.8%), '운전 등 교통체증 스트레스'(15.7%), '지나친 과식으로 체중 증가'(10.4%), '명절 음식 준비 등 잡안일'(10.2%) 등이 거론됐다.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설 지출액은 평균 3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한 직장인들의 설 지출액 평균 30만7000원보다 늘어난 액수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부모님 용돈 및 선물'(59.3%)이었다. 이밖에 '교통비'(9.5%), '세뱃돈'(5.9%), '음식 마련 비용'(5.4%), '친지 어른 선물'(4.3%)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10.6%)은 설 연휴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귀성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회계를 모았다.

/정윤희기자 unique@

"공채 한달 남았는데…"

삼성 서류전형 부활 등 대기업 전형 변화에 구직자 혼란

상반기 대기업 공채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구직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6일 취업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공채 최대 이슈는 삼성그룹이다. 최근 삼성그룹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류 전형을 부활하고 대학 총장 추천제와 캠퍼스 현장 면접 '찾아가는 열린 채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평점 3.0 이상과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를 보유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응시 기회를 주었다.

문제는 대학 총장 추천제다. 대학별 총장 추천 할당 인원 기준과 편차 문제뿐 아니라 삼성이 SSAT 진행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가장 많은 추천권을 나눠준 대학은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115명)며 이어 서울대와 한양대(각 110명), 연세대·고려대·경북대(각 100명) 등이다. 지방의 경우 영남권 대학이 전남권에 비해 추천 인원이 많아 지역 차별 논란까지 불거졌다.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삼성 채용 홈페이지 '삼성커리어스'에는 공채 변경사항 공지글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네이버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 '독취사' 삼성 게시판에는 "삼성 임직원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할당 인원을 정했다는데 대기업이 대학 서열을 조장하는 것 같다" "스펙이 부족해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던 유일한 기업이었는데…" "대학 규모와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았다" 등 혼란스러워 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한 구직자는 "주요 대기업의 채용 전형 변경이 적어도 두세달 전에 예고되면 좋겠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현대자동차 필기시험 때 역시 논술 문제가 나와 모두 '멘붕'이었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 공채를 한달 앞두고 전형 변화를 접하게 되어 혼란스럽다"면서 "학생을 추천하기 위해 학교 자체 SSAT 검시대비라도 열어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기업 취업이 구직자의 최대 관심사인만큼 채용 변경 가이드 라인이 미리 게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예술도자기 선물하세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아케이드 내 한국도자기 롯데호텔점에서 모델들이 설맞이 선물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선물 컬렉션에는 이왈종 작가의 '도리지 와', 사석원 작가의 '억세풀과 제주조랑말' 전시, 지오 메트리카 티세트 등 예술도자기들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

라이나생명 실버암보험 가입 80세로 확대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하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을 받으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무배당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에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는다. 단 이 특약의 가입연령은 61세부터 75세까지다.

비교적 치료가 쉽고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갑상선암보장 개시일 이후 진단확정 받은 경우)은 진단확정 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받는다.

단 보험 가입 후 만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위의 보장사항에 해당하는 치료보험금의 각각 50%씩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김현정기자 hjkim1@

다보스포럼은 재계 차세대 리더 '국제무대 등용문'

다보스포럼이 우리나라 재계의 차세대 리더인 젊은 기업인들을 국제무대에 데뷔시키는 장이 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아들로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2009년 다보스포럼이 선정한 '영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바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은 2007년 '영글로벌리더'로 선정됐고, 지난 2010년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하는 주요 20개국(G20) 영글로벌리더(YGL) 조직인 'YGL G20 이니셔티브' 멤버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도 지난 2011년부터 혼자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김 실장 역시 2013년 '영 글로벌리더'로 선정된 바 있다.

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조현상 효성 부사장, 김동관 한화 실장

특히 다보스포럼에 즈음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밤' 행사를 열고 한국의 국격을 알리는 비담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재임 시절 시작된 '한국의 밤' 행사는 대한민국 국격 및 경제력 성장에 따라 매년 위상을 더해가고 있다.

2009년 1월 열린 첫 '한국의 밤'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비 줄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등 국가 원수들과 글로벌 CEO들이 참석한 바 있다. 첫 행사를 성공리에 끝낸 조석래 회장 등 재계 리더들은 '한국의 밤'을 이때부터 정례화하기로 하고 정부와 재계가 함께 협력해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한국의 밤'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한덕수 무역협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사장,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등의 한국 기업인과 스티브 볼즈 GE 발전·수력 회장, 존크마데너 보쉬 회장, 존 넬슨 로이드 회장 등 포천 500대 기업의 글로벌 CEO 20여명이 함께 투자 및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학균기자 kei1@

구글 일부 서비스 장애

G메일, 구글플러스 등 구글 일부 서비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오전 일부 장애를 겪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구글은 이날 구글 앱스 현황 페이지를 통해 장애 발생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구글이 게재한 공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2분 G메일을 시작으로 구글 캘린더, 토크, 드라이브, 닥스, 시트, 슬라이드, 드로잉, 사이트, 그룹스 등 구글 앱스 서비스 10종에 장애가 발생해 오전 5시25분께 완전 복구됐다.

아울러 구글플러스 행아웃과 구글 보이스도 일부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장애는 영국 등 유럽,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기자 ry0403@

'닭이 울면' '바람난 버거'… 메뉴 튀어야 산다

외식업체 개성 넘치는 이름 붙인 제품 잇따라 선봬

메뉴의 맛과 개성을 어필하기 위해 독특하고 위트 있는 이름을 붙이는 외식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억하기 쉽고 톡톡 튀는 메뉴 이름은 고객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기도 한다.

스쿨푸드는 메뉴 이름만 들어도 어떤 메뉴인지 알 수 있는 '겨울에 온면'과 '닭이 울면' 등 위트 넘치면서 기억하기 쉬운 메뉴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업체의 대표 메뉴인 '마리' 또한 '말다'에서 따온 메뉴 이름으로 발음이 귀엽고 부르기 쉬워 사랑받고 있다.

구름만두 까르보나라'는 구름을 닮은 미니 만두를 사용해 만든 까르보나라 메뉴로,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담백한 맛, 아담한 크기로 특히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쥬전 딱 키의 자이소는 치즈는 블루베리를 싣고' '갈릭을 기다려' '바람난 버거' 등 메뉴에 독특한 이름을 붙여 메뉴판을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스쿨푸드의 '닭이 울면'과 '겨울에 온면'

나뚜루팝의 '솔티가 카라멜을 설레게 해'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요래요래' 또한 기억하기 쉽고 재미있는 이름 덕분에 대표 메뉴로 떠오르며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발음이 쉽고 반복돼 입에 착 감기는 메뉴 이름으로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나뚜루팝도 톡톡 튀는 콘셉트의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카라멜 제품의 이름은 '솔티가 카라멜을 설레게 해'.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카라멜의 단맛을 더욱 살리기 위해 소금을 더한 아이스크림으로, 소금의 짠 맛 때문에 카라멜의 달콤한 맛이 더욱 진하고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장윤희기자 sens@metroseoul.co.kr

상품권 20만원 이상 사면 5000원 추가 증정 홈플러스는 설을 맞아 디지털 상품권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권의 매출이 급성장 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20만원 이상 구매 또는 충전 시 5000원 추가 증정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맥주병 따는 재미… '부엉이' 보는 재미

주류업계 기능·디자인 차별화 마케팅 눈길

국내에는 국적과 이름이 다양한 200여 종 이상의 맥주 브랜드들이 있다. 이 맥주들 가운데 고유의 맛과 향 외에도 차별화된 제품 기능과 패키지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제품이 있다.

◆패키지에 특별한 기능을 담다

카스 후레쉬의 병따개인 '후레쉬 캡'은 뚜껑 내부를 특수 설계해 개봉 시 기존 병뚜껑보다 훨씬 강하고 청량감 있는 소리를 내 '따는 재미'를 높였다. 이 특수장치는 기존 제품보다 유리병 병구부의 밀봉력을 높여 맥주의 신선함이 오래가도록 한다.

OB골든라거는 국내 맥주 최초로 병뚜껑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신기술인 락킹(Locking) 공법을 도입해 깊은 맛과 향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골든 캡'이라 불리는 OB 골든라거의 병뚜껑은 산소를 흡착하는 특수 소재로 제작된 'OST 라이너'를 적용해 병 내 맥주의 산소 접촉을 최소화해 기존 제품보다 산패 방지 효과와 밀폐력이 뛰어나다.

◆패키지로 시선을 사로잡다

네덜란드 맥주 그롤쉬는 오프너로 따거나 트위스트 캡 형태가 아닌 병 입구가 편색 마개와 쇠고리 형태로 단단히 밀봉된 스윙탑을 적용했으며, 병 바디에는 라벨 대신 그롤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도심에서 외식과 쇼핑 공연 등을 동시에 즐기며 겨울방학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몰링명소가 많다. 사진은 영등포역에 위치한 경방 타임스퀘어의 '굿럭 굿뮤직' 공연 모습. /타임스퀘어 제공

맛 보존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포함시켰고, 뚜껑을 다시 닫아주면 밀봉 상태로 만들어 그롤쉬 특유의 맛과 향을 유지시킬 수 있다. 뚜껑이 열릴 때 들리는 '뻥' 소리는 상쾌한 뚜껑을 따는 동안 재미까지 준다.

일본의 히타치노 네스트는 일명 부엉이 맥주(사진)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귀여운 부엉이가 라벨과 병 뚜껑에 그려져 있다. 맥주병에 빨간 부엉이를 그려 넣어 '맥주를 마신 후 우리의 인생에 행운이 가득하라'는 의도를 담았다. /장윤희기자

지하철로 찾아가는 '몰링 명소'

영등포역 타임스퀘어·용산역 아이파크몰 등 설맞이 다양한 이벤트

겨울방학 시즌이지만 연일 계속되는 한파로 집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학부모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자녀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해 쇼핑·영화·이벤트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원스톱 몰링'이 가능한 곳이 서울 도심에 의외로 많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에 위치한 여의도 IFC 몰에는 쇼핑몰과 함께 영풍문고, 영화관 등이 자리잡고 있어 겨울방학 기간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구간에 위치한 영등포역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용산역 아이파크몰, 신도림역 디큐브백화점 등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경방 타임스퀘어에 최근 문을 연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앤키즈(KIDS&KEYS)'는 설날을 맞아 이벤트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새해 세일행사 '2014굿럭마켓'을 통해 패션잡화 및 라이프스타일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을 할인해 구입할 수 있다. 설 연휴 주말 동안 문화공연 '굿럭 굿뮤직'에서는 인디밴드 '라이노어쿠스틱'과 '여일밴드'가 연주회를 연다.

아이파크몰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문화관 '명공방'에서 수억의 종이모형 집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건담 에서는 무료 프라모델 조립에 참여할 수 있다. 오크네일 매장에서는 귀성열차 티켓을 가져오면 무료로 기본 네일케어를 받을 수 있다.

디큐브백화점은 31일까지 다양한 품목의 설 선물세트를 엄선해 선보이는 '설 선물세트 제안전'을 벌인다. 당일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영화 시사회 초대권과 콘서트 초대권 등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장윤희기자

소셜 큐레이션 커머스 앱 출시

모바일 쇼핑이 최근 유통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소셜 큐레이션 커머스의 한국판 애플리케이션이 공식 오픈한다.

소셜 큐레이션 커머스 '쇼케이스'를 운영하는 스푸딩(여근혁)은 27일부터 패션 뷰티 리빙 등 다양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셜서비스를 시작한다.

쇼케이스는 기존 SNS 서비스에 쇼핑을 접목한 형태로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유저를 팔로잉해 개인 피드를 구독할 경우 맞춤형 쇼핑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윤희기자

강력한 심장·조용한 승차감…"예술이네"

임의택의 차차차

■벤츠 뉴 S클래스

▲한 줄 평가 렉서스만큼 조용하고 BMW처럼 강력하다 ▲평점 ★★★★ (별 다섯개 만점)

455마력 동급모델 최강…안전성·핸들링 돋보이고 뒷좌석도 넉넉

신형 S클래스와의 첫 대면은 극적이었다. 2012년 독일 출장 때 위장한 채 달리는 뉴 S클래스가 우리 시승차 앞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 마침 나는 동승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카메라를 쥐고 있던 터라 재빨리 S클래스의 모습을 담았다. 외신을 제외하고 국내 언론이 뉴 S클래스의 모습을 직접 담은 것은 그때가 최초였다.

한국에서의 공식 데뷔는 2013년 11월이었고, 시승차는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만날 수 있었다. 기자에게 도착한 차는 'S500L'. 6가지의 모델 중에 중간급에 해당하는 모델이다.

전면 디자인은 아직 낯설기 때문인지 몰라도 구형이 더 나아 보인다. 전 세대 모델은 균형과 비례감이 좋았던 반면, 이번 모델은 다소 복잡한 인상을 지녔다. 그러나 램프를 켜면 뉴 S클래스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LED 램프는 영롱하게 빛을 발하여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뉴 S클래스에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기술을 적용한 트랜스미션이 적용됐다. 이 기술의 장점 중 하나는 센터 콘솔 대신 스티어링 칼럼에 기어레버를 장착할 수 있는 것. BMW는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했던 7시리즈에 이런 방식을 썼다 다시 센터 콘솔에 기어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메르세데스 벤츠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손맛'을 느낄 수 없지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아쉬움은 크지 않다.

S500L은 V8 4.7ℓ 가솔린 엔진과 7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려 455마력의 최고출력을 낸다. 동급 모델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다. 기존에는 BMW 750이 449마력으로 가장 높았다. 구형 S500의 경우 배기량이 5.5ℓ로 BMW 750보다 크면서도 출력이 388마력에 불과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들었지만 이번에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변진에 성공했다.

출력은 높아졌지만 주행 중에는 적막감이 감돌만큼 조용하다. 기존 독일차가 약간의 소음을 '사운드'라고 주장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이다. 정숙성은 렉서스 LS와 1위를 다툴 정도로 동급 최고 수준이다.

뉴 S클래스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서스펜션 셋업이다. 콤포트와 스포츠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두 모드의 차이가 명확하다. 뒷좌석에 사장님을 모실 때는 콤포트 모드로 안락감을 높일 수 있고, 고속주행을 즐기고 싶을 때는 스포츠 모드가 차체를 확실하게 잡아주며 위력을 발휘한다.

S500L 이상에 적용된 '매직 보디 컨트롤'은 승차감과 핸들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렸다. 룸미러 뒤편에 마련된 카메라가 노면을 스캔하고, 고저 차이에 따라 충격을 미리 흡수하는 메커니즘이다. 서스펜션 모드는 두 가지 밖에 없지만, 동급에서 가장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아우디 A8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전성 면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프리세이프 브레이크'다. 주행 중 차간 거리를 인식하다가 앞차와 너무 가까워지면 충돌 직전에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다. 특히 보행자 인식 기능이 더해져 불의의 사고를 겪을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이번 시승에서도 앞차의 급제동에 대응해 차가 알아서 멈추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

뒷좌석의 크기는 넉넉하게 설계됐는데, 앞 시트 뒤에 달린 모니터가 약간 돌출된 점이 거슬린다. 모니터가 돌출되면 뒷좌석 승객의 얼굴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보기에도 안 좋다. BMW 7시리즈의 경우 이 모니터가 시트에 밀착돼 있어 이런 거슬림이 없다.

뉴 S500L은 승차감과 핸들링이 가장 돋보인다. 재규어 XJ가 운전자 중심의 차이고 렉서스 LS가 뒷좌석 위주의 차라면, 뉴 S클래스는 앞뒤 승객에게 두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동식 뒷좌석 설계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희생된 점은 옥의 티다. S500L의 복합연비는 8.5km/ℓ이고 도심연비는 7.2km/ℓ인데, 이번 시승에서는 5.5km/ℓ를 나타내며 기대에 못 미쳤다.

뉴 S클래스의 가격은 1억2990만원(S350 블루텍)부터 2억2200만원(S500 에디션1)까지 6종류가 있다. S500보다 훨씬 강력한 출력을 내는 S63 AMG는 2억1300만원으로, 시승차인 S500L(1억9700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속주행을 즐기는 이라면 좀 더 투자해 S63 AMG를 선택하기를 권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WRC 공식 타이어'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세계 3대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4 WRC(월드 랠리 챔피언십) 공식 타이어로 선정됐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WRC의 전위 관문으로 불리는 2013 JWRC(Junior World Rally Championship)에 랠리 타이어를 독점 공급해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들의 로망 중 하나인 WRC 공식 타이어로 선정됐다.

특히 F1, 나스카(NASCA)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스포츠 대회로 불리는 WR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모터스포츠 대회로 유명하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기업으로는 최초로 WRC 공식 타이어로 선정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했다.

/박성훈기자

<국산·수입차 신차판매량 TOP5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신차판매량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포터2	6,382	1,000	1,130	1,330	1,500
기아	모닝	8,001	-	870	900	1,000
현대	아반떼	7,838	1,250	1,280	1,390	1,510
현대	그랜저	7,649	-	2,440	2,600	2,950
쉐보레	스파크	6,362	660	750	800	920
벤츠	더뉴E-Class	1,029	3,930	4,230	4,670	5,210
BMW	5 Series	1,022	3,760	4,050	4,610	5,140
아우디	A6	936	-	4,050	4,720	5,210
벤츠	더뉴S-Class	481	6,840	8,090	8,430	10,300
렉서스	ES	481	2,670	2,990	3,450	4,50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기아차 작년 영업익 3조1771억원…1년새 9.8%↓

매출액은 0.8% 늘어나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액 47조5979억원 ▲영업이익 3조1771억원 ▲세전이익 4조6286억원 ▲당기순이익 3조8171억원(이상 IFRS 연결기준)을 달성했다. 4분기(10~12월) 경영실적은 ▲매출액 11조7666억 ▲영업이익 6502억 ▲세전이익 1조1629억원 ▲당기순이익 9490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2013년 전 세계 시장에서 K3, K5, K7 등 K시리즈를 비롯한 스포티지R 등 주요 차종의 판매호조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로 전년대비 4.0% 증가한 282만7000여대(출고기준, 해외공장 생산분 포함)를 판매했다.

판매 증가는 해외공장이 주도했다. 특근차질 및 노조의 부분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공장 생산분은 159만8000대로 0.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해외공장은 현지생산 차종의 판매호조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한 122만9000대를 판매해 국내공장 부진을 만회했다.

매출액은 환율 하락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판매 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판매 대수 증가와 K7 북미 진출 등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47조597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경쟁력 강화에 따른 양적, 질적 성장 노력과 판매관리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에 따른 매출원가율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한 3조1771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높아진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기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제값 받기' 등 통한 내실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시장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 연간 사업계획 물량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출시될 신차들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내수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한편, 해외시장에서는 현지에 특화된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성훈기자

착각에 빠진 새누리당

정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사실상 거부할 태세이다. 당론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선거에서 공천이 폐지되면 위헌 논란, 후보 난립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정당공천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원총회 발언자 17명 가운데 13명이 정당공천 유지를 주장했고 4명만이 폐지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빚은 폐해는 수없이 많았다. 특히 공천비리로 지방자치 선거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공천비리로 입건된 사람만 118명이고, 2010년에는 무려 1700여 명이 금품수수로 수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쉴 사이 없이 치러지고 이에 따른 비용도 적지 않게 낭비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문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패정치의 온상이 바로 공천제도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 갑을관계'로 지역구 관리는 물론 각종 청탁에서 인사 개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비리를 반복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제 폐지로 후보 난립 등 문제점도 예상되나 지금까지 나타난 비리와 견줄만한 입장이 아니다.

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조차 한 포럼에서 "대한민국 공천은 모두 사천"이라고 발언할 만큼 공천제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누리던 공천제의 단맛(?)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야당이 공천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해도 폐지를 강행해야 할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정치혁신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을 창출한 새누리당이 대선 1년이 지나 공약을 저버린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야당보다 훨씬 앞서있는 점에 도취된 듯하다. 집권여당이 정치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어떻게 보면 상대성에 따른 반사이익이 작용한 점도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이 출범하게 되면 또 다른 정치지형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은 현실에 안주할 입장이 못 된다. 원칙과 정도로 나아가 국민이 갈망하는 정치혁신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그래도 대목은 대목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시장을 찾은 한 시민이 설 차례상에 올릴 생선을 구입하고 있다. "예전 설 연휴가 다가오면 손님이 줄어든다"며 한숨을 내쉬던 상인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metroseoul.co.kr

'해커들의 놀이터' 대한민국

뉴스룸에서
이 국 명
<경제산업부장>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물인 중국의 만리장성은 기원전 3세기경 진시황이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하기 시작했다. 수·당·명을 거치면서 전체 길이 6400km라는 어마어마한 장성으로 완성됐다. 그런데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만리장성은 정작 외적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다. 특히 만리장성 증축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명나라의 경우 결국 만리장성 때문에 멸망이 앞당겨지기도 했다.

최근 국내 IT업계에 다소 불편한 뉴스가 전해졌다. 한때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마이크로소프트(MS) 웹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의 국내 점유율이 80%를 재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가 발표한 전 세계 웹 브라우저 조사에서 IE가 27.3%의 점유율로 크롬(41.9%)에 크게 뒤진 것을 감안할 때 기현상이다.

하지만 국내 IT전문가들은 IE 점유율 급상승이 전 세계의 IT 흐름에서 고립된 점점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는 국내 IT 현실을 감안할 때 전혀 놀랍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00대 민간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5%가 IE의 보조 프로그램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고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IE 점유율 상승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 등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한데다 연말정산 기간까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액티브X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국내 금융계와 방송사에 휘몰아친 해킹사고도 보안 액티브X 응용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들은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며 액티브X의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액티브X를 포기할 경우의 '매몰비용'을 거론하는 주장도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암호화인증통신(SSL),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문자메시지(SMS) 인증, 스마트폰 보안 응용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 액티브X 사용을 피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까워 많은 국력을 퍼부었다가 멸망을 자초한 명나라처럼 IE 액티브X라는 '만리장성'만 믿고 있다. 'IT강국'에서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IT의 현실이 안타깝다.

엘 그레코의 질문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바티칸의 시스틴 성당은 미켈란젤로의 유산이 되었다. 하늘이 되어버린 천장에 새겨놓은 그의 '최후의 심판'은 어떤 위대한 영혼이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 누구도 다시는 뽑아버릴 수 없게 벽에 박아버린 화살이다.

미켈란젤로의 산맥을 뛰어넘기란 애초부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런데 여기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화가가 등장한다. 16세기 당시 베네치아 공국의 일부였던 크레타 섬 출신의 엘 그레코. 그는 베네치아와 로마에서 활동하다 스페인의 톨레도로 발길을 옮긴다.

미켈란젤로가 균형미를 복원하는 것에 몰두했다면 톨레도의 엘 그레코는 그와 같은 균형미를 지루하다고 여긴다. 이건 당대 최고의 두뇌로도 상상이 불가능한 이탈이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 그레코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보다 얼굴과 몸이 길거나 현실에서는 복원이 어려운 각도로 고통스럽게 비틀려 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어두움과 빛의 대조가 매우 뚜렷하다. 이미 치밀하게 정제된 균형보다는 기존 질서를 격하하는 '발언'이 중요해진 것이다.

여기서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았던 것은 어둡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그림 안에서 광채가 섬광처럼 뻗어나오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엘 그레코는 그림을 그릴 때 밝은 방보다는 어두워진 방에서 사물을 응시하고 그걸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낮의 태양은 그의 '내면의 빛'을 섬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들어서면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 있는 예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벽면 전체를 '침략하는 궤장'처럼 덮은 벨라스케스와 루벤스의 그림이다. 그런 들면 날카로운 쇠붙이가 가슴팍을 테러리스트처럼 막무가내로 찌르고 후벼 파듯 쑤시고 들어오는 강렬한 아픔을 닮았다. 그 그림의 기운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엘 그레코의 고뇌와 만나게 된다. 손과 발에 바위를 뚫는 두터운 징과 다를 바 없는 못이 박히고 여윈 가슴에 날선 창이 찔려 유혈이 낭자한 채 숨을 거둔 예수의 처절한 모습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비극의 압축이다.

외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목숨을 걸고 전마했던 존재가 타살당한 현장은 우리의 심장을 격동시킨다. 엘 그레코는 그 '사람'을 정직하게 그려낸다. 아,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은 여기서 시작된다. 어려운 삶은 어렵기만 한 게 아니다. 거기서 도리어 빛이 나온다. 비극의 일맥은, 그래서 마침내 희망이다.

속 보이는 녹십자

기자 수첩
황 재 용
<생활경제부 기자>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 무산 소식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논란의 중심에는 일동제약이 아니라 지주사 전환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녹십자가 있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인수·합병(M&A)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녹십자는 "지주사 전환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못해 반대한다"고 밝히며 M&A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철저하게 M&A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먼저 29.36%의 지분율을 가진 녹십자는 자신과 함께 지주사 전환을 반대한 피델리티(9.99%)만 인수하면 일동제약 경영진(34.16%)보다 많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M&A가 성사될 수 있으며 현재도 녹십자는 일동제약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주사 전환을 반대했다는 입장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퍼지고 있다. 물론 녹십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녹십자에게 일동제약은 성장의 기폭제가 될 좋은 먹잇감이다. 녹십자 자신의 강점인 혈액제제와 백신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일동제약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M&A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녹십자가 M&A에 대한 생각이 정말 없다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만이 지금 받는 온갖 비난을 피하는 길이다.

한국 속 세계유산 안 봤으면 말을 마세요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국내 여행지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은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탐방'이라는 테마 아래 2월에 가볼 만한 곳 4곳을 선정했다.

제주 거문오름·경주 등 한국관광공사 추천 '2월에 가볼 만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왕에게 가는 길…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문무대왕릉까지

경북 경주 월성 산책로를 걸으면 1500년 전 신라를 만날 수 있다.

파사왕이 축성한 뒤 신라의 궁궐이 된 월성은 현재 조승달 모양 자령에 숲과 잔디밭만 남았지만 여름다운 솔숲을 거닐며 산책하기 안성맞춤이다. 또 한때 월성의 주인이던 진평왕과 선덕여왕의 무덤이 보문들과 낭산 자락에 온저 남은 들녘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능과 성덕대왕신종 등 다양한 유적지가 볼거리를 더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대장경판

경남 합천 해인사는 고려 시대 몽골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할 때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불사를 일으킨 곳이다. 대장경은 8만4000 번뇌를 의미하는 8만4000 법문을 새긴 목판으로 세계에 현존하는 대장경 중 가장 방대하고 오래된 것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과 더불어 그들 봉안한 장경판전 역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으며 장경판전이 있는 합천 해인사는 법보사찰로 꼽히는 천년 고찰이다. 근엄하면서도 기품 있는 사찰의 면모는 병풍처럼 두른 가야산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다가온다. 대장경 제작 과정과 장경판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대장경테마파크와 해인사소리길, 합천영상테마파크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조선의 왕들이 지극히 아끼던 공간 -창덕궁과 종묘

가까운 서울에도 최고의 유산이 있다. 바로 조선의 왕들이 대대로 아끼던 곳으로 알려진 창덕궁과 종묘다.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오랜 세월 왕들이 거처한 궁궐인데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무대가 된 인정전은 웅장한 멋이 넘치는 곳이다. 또 왕실 여인들의 생활 공간인 대조전, 왕이 업무를 보던 선정전, 왕세자가 공부하던 성정각, 조선의 마지막 황실 가족이 살던 낙선재 등 건물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왕실의 사당이다. 단일 건축물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정전을 중심으로 영녕전, 재궁 등 종묘의 건물들은 하나같이 장엄한 멋이 흐른다. 국립서울과학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과학·문화·예술적인 볼거리들을 끼워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용암이 빚은 동굴들의 시작점, 거문오름

제주도에는 나지나직하지만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경을 이루는 크고 작은 오름 수백 개가 있다. 이 중 거문오름(거문오름용암동굴계)은 용암이 만든 다양한 동굴과 분화구의 식생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탐방로를 따라 분출된 용암이 흘러가며 만든 용암 계곡과 동굴 풍혈, 화산활동 당시 만들어진 화산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거문오름 탐방은 총 4개 코스로 1일 예약자 400명만 탐방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해설사와 함께 출발하며 오름 입구의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곳이다. 조랑말체험공원, 해녀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괜찮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쉐라톤 인천 호텔서 특별한 '설맞이'

예약자 50명 연 증정도

쉐라톤 인천 호텔이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14 새해 설맞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2014년 한해 가정에 만복을 기원하며 출시된 이번 패키지에는 넓은 유리창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디럭스 룸 시티뷰에서의 1박과 로비 라운지 커넥션에서 제공하는 따뜻한 음료 2잔이 포함된다.

또 전통 명절인 설날을 맞아 미리 예약한 50명에게 선착순으로 연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며 모든 숙박 고객에게는 쉐라톤 피트니스와 실내 수영장 이용 및 Link@Sheraton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무료로 제공된다.

스타우드 프리퍼드 게스트(Starwood Preferred Guest) 회원들에게는 특별히 할인된 금액으로 패키지가 제공되는데 가격(세금 및 봉사료 별도)은 SPG 회원이 14만5000원부터, SPG 비회원이 16만5000원부터다.

문의: 032)835-1004

/황재용기자

공항철도-코레일 일반열차도 연계 할인 서비스

공항철도와 다른 열차와의 연계 운임 할인서비스가 확대된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지난 23일부터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코레일 일반열차에 대한 연계 할인서비스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계 할인서비스는 공항철도 직통열차와 KTX를 연계할 때만 가능했다. 이에 코레일공항철도는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운임이 할인되는 연계 승차권 할인 대상을 기존 KTX에서 새마을 등 코레일 일반열차까지 확대시키기로 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ITX-청춘 열차 이용객도 직통열차 승차일과 동일한 일자의 해당 승차권을 공항철도 고객센터(서울역·검암역·인천공항역)에 제시하면 직통열차 운임을 8000원에서 69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할인 대상 열차의 기간제 이용권(KR패스·내일로패스·정기승차권) 소지자도 직통열차 승차일이 기간제 이용권 유효기간에 포함돼 있다면 동일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코레일공항철도 관계자는 "기존 연계 승차권(직통열차+KTX)은 KTX역 이용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할인 범위 확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있었다. 직통열차를 이용하면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탑승수속 및 출국 심사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서울 근교와 지방 거주객들의 연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할인 혜택은 서울역-용산역 동일 구역에서 승·하차한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2014 새해맞이 19일간의 특별할인

말띠할인가 10,000원 | 평일할인가 12,000원

주말조조할인가 12,000원 | 주말할인가 15,000원

+경고! 웃다가 기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극

라이어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콜리틴트 팝업 스토어 오픈 베네피트가 21일 서울 명동포 타임스퀘어 콜리틴트 팝업 스토어에서 신제품 '콜리틴트'를 소개하고 있다. 콜리틴트는 리퀴드 젤 타입으로 가볍게 잘 발리며 선명하게 발색되는 립 제품이다. 베네피트는 다음달 7일부터 8일간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도 콜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베네피트 제공

주부 9단도 요건 몰랐지

겨울 이불 부피큰 세탁법

석조·소다로 세탁조 청소·극세사엔 섬유유연제 금물

부피가 큰 겨울 이불은 관리가 까다롭다. 양모·극세사처럼 조심히 다뤄야 하는 소재가 많고 두껍고 무거워 세탁 시간도 오래 걸린다. 23일 CJ라이온이 집에서도 손쉽게 겨울 이불을 빨 수 있는 올바른 세탁법을 소개했다.

◆빨기전 세탁조 청소로 악취 잡기

두툼한 겨울 이불은 빨고 난 뒤에도 간혹 찜찜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세탁기나 세탁물의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균이 번식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세탁조를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세탁기 안에 물을 채우고 석조와 베이킹소다를 한 컵씩 넣어 한 시간 정도 그대로 둔 뒤 표준모드로 돌려주면 된다. 청소 후에는 세탁기 안을 완전히 말려야 석조 냄새 등 잔내가 나지 않는다.

◆극세사엔 잘 녹는 액체세제 사용

극세사 이불은 물세탁이 가능하고 잘 마르는 편이라 관리가 간편하다. 세탁기의 이불 빨래 전용코스를 사용하거나 손빨래를 하면 된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소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45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서 빠는 게 좋다. 또 가루 세제보다는 물에 잘 녹는 액체 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 헹굼 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극세사 이불에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소재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흡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면소재엔 중성·알칼리 세제 모두 사용

아토피 등 민감한 피부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한 겨울에도 면 소재 이불을 사용한다. 면 이불은 중성 세제나 알칼리성 세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대신 마지막 헹굼물에 섬유유연제를 넣으면 정전기가 방지된다. 혹시 남아 있을 세제 찌꺼기가 걱정된다면 세균과 찌든 때의 주 성분인 단백질을 완벽 분해하는 실내건조 전용 세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워커에 청바지…남성 패션도 복고 열풍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인기로 '복고 열풍'이 불면서 남성 워커가 인기 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슈즈 브랜드 캐터필라 관계자는 "스트리트 패션과 복고 패션에 대한 향수로 1990년대 패션이 주목을 받으면서 워커를 찾는 남성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세련된 스타일링 팁을 소개했다.

워커를 신고 체크셔츠나 청바지를 입으면 복고 느낌을 풍기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워커에는 스키니진보다 여유 있는 [illegible] 어울리는데 활동적이고 날렵한 분위기를 표현하려면 바지 밑단을 신발 안쪽에 넣는 것이 좋다.

여기에 더플 코트(떡볶이 코트)나 스냅백 모자를 착용하거나 원색의 목도리를 두르면 빈티지한 스트리트 룩이 완성된다. /박지원기자

'일품해물라면' 모델에 '앙대요' 김영희·정태호

지난해 '남자라면'과 '완투짬'의 이색적인 광고로 주목을 받았던 팔도가 또 한 번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다.

팔도는 4가지 해물(오징어·새우·홍합·미더덕)이 들어가 얼큰하고 시원한 해물 맛을 느낄 수 있는 '일품해물라면'의 광고모델로 개그콘서트 '끝사랑'의 주인공 김영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1월 말에 온에어 할 예정이며 [illegible] 아 상품이 2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알코리아 새해 정책설명회

비알코리아(www.brkorea.co.kr)는 지난 21일과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전국 가맹점주 및 임직원이 함께 한 '2014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21일 던킨도너츠 설명회에는 국내사업 20주년을 맞아 커피와 이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던킨의 브랜드 비전이 제시됐다. 23일 배스킨라빈스 설명회에서는 매달 1일에 출시하는 '이 달의 맛'을 메가 히트 상품으로 매출을 증대하고 업그레이드 된 기술·디자인 등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햄버거·솜사탕까지 집에서 '뚝딱'

영양만점 간식메이커 눈길

자녀에게 영양 만점인 간식을 챙겨주고 싶은 게 엄마의 한결 같은 마음이다. 집에서도 '간식 메이커'를 활용하면 시중에서 파는 인스턴트 간식보다 영양가 있는 간식이 완성된다.

'저칼로리 고칼로리'를 대표하는 햄버거도 그릴을 이용하면 담백하고 건강한 요리로 변신한다. 쿠진아트의 '그릴&그리들러'는 상하 쿠킹 플레이트가 적히도록 설계돼 음식 양면을 동시에 익힐 수 있다. 햄버거 패티 같은 두꺼운 고기를 요리하기에 알맞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넛 역시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기고 설탕 글레이즈를 묻혀 만들어 기름기가 많다. 가정에서 도넛 기계를 이용하면 기름 없이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도넛이 완성된다. 브레드가든의 '도넛 메이커'는 예열 된 판에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약 10분 안에 도넛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노스볼지아의 '일렉트릭스 솜사탕 메이커'는 무설가 설탕으로 솜사탕을 만들 수 있다. 중앙 홈을 예열하고서 설탕이나 사탕을 넣고 막대를 돌리면 동그란 솜사탕이 된다. /박지원기자

제수용 '한우왕세트' 선착순 200명 할인

강강술래 쇼핑몰·전화주문 중저가 실속세트 43% 세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쇼핑몰(www.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선착순 200명에게 제수용 인기부위만 담은 '한우 왕세트1호(국거리+불고기 산적 각 500g)'를 7만9000원에 판매한다.

100% 한우 갈빗살로 만든 찰진 한우 떡갈비(1박스 360g)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나 넣은 흑임자 한돈너비아니(2박스 720g) 구성의 '한우 왕세트2호'도 2만8300원에 선보인다.

한우 사골곰탕(350㎖ 3팩)과 우리 쌀떡국떡(1kg)으로 구성된 '한우 떡국세트(소)'는 2만1000원, 곰탕(800㎖ 3팩)과 떡국떡(1kg)으로 만든 '한우 떡국세트(대)'는 3만1000원에 선보인다.

또 쇼핑몰과 전화주문 전 매장을 통해 최대 43% 할인 판매 중인 선물세트 중 한우불고기와 곰탕, 양념갈비 등 중저가 실속세트 주문이 크게 늘고 있다.

방부제·색소·조미료를 넣지 않아 건강선물로 좋은 '한우 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 5팩·15인분)는 4만원, 소용량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4500원, 직접 한우 떡갈비세트(3박스 1.08kg)는 4만4500원에 선보인다.

인기메뉴인 '한우 불고기1호(1.8kg)'는 6만원, '술래양념1호(16대)' 8만원,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장조림 총2.4kg)'는 14만원에 판매한다. 100% 등심살과 자연치즈를 사용한 '등심돈가스(3박스 2.16kg) 3만1900원'와 '모짜렐라돈가스(3박스 2.16kg) 3만6000원'도 30% 할인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illegible]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6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노인 대상 생활고 탓 방치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수술비용 지원 캠페인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쉽게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명절 음식 준비와 차례 성묘 등 명절 때 해야하는 일들이 평소 무릎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을 느끼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운 날씨 탓에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져 고통은 배가 된다.

◆일상생활 중에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계속 된다면 퇴행성 관절염 의심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연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닳아 없어지거나 외부 충격, 손상 등으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퇴행성관절염이라고 한다.

그중 무릎은 관절 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퇴행성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중 약 80%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 것이다. 특히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혈관이 존재하지 않아 재생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상태에 따라 초·중·말기로 구분된다. 연골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기나 중기의 경우는 연골 재생 등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뼈와 뼈가 맞닿는 말기의 상태가 되면 약물이나 수사요법, 물리치료 등은 효과가 없어지고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남게 된다.

◆연골이 닳아 뼈와 뼈사이가 맞닿은 말기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인공관절 수술은 뼈의 뼈사이가 맞닿고 염증이 생긴 무릎 연골 대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을 무릎 내에 이식하는 수술법이다. 운동 각도를 늘린 고굴곡 인공관절, 여성의 골격에 맞은 여성형 인공관절, 개인 골격에 정확히 맞춘 맞춤형 인공관절 등의 종류가 있으며 수술 후에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 건강하던 무릎을 가졌을 때의 운동범위와 능력을 회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데도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통증을 참으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수술비 부담 때문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한쪽 무릎만 받으면 약 200만~300만원 정도의 수술비가 필요하고 양쪽 모두 시행할 경우에는 약 500만원 가량의 수술비가 든다. 또 수술비 외에도 입원비, 검사비, 간병비 등이 추가로 부담이 된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 600만~7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그 비용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 캠페인 전개

이에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하고 통증을 참아가며 생활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본격적인 후원에 나섰다. 엄홍길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무료 인공관절 수술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캠페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 휴먼재단 캠페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본인의 어려운 사연과 증상등을 접수하면 된다. /황재용기자

◆지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6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후원 캠페인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

앉아서 음식 만들땐 한쪽 무릎 세워야

설 연휴 올바른 관절관리법 운전땐 시트에 엉덩이 밀착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이지만 집안일과 장거리 운전 등으로 설날이 지난 후 '관절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부엌일 할 땐 바닥에 앉기보다 식탁에 서서

주부들의 명절 노동은 중노동에 가깝다. 특히 음식을 준비할 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오기 쉽다. 50대 폐경기 전후 여성들의 경우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관절통이 쉽게 올 수 있는 만큼 부엌일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식을 할 땐 바닥에 앉아서 하기보다 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앉아 있을 때 척추가 받는 하중은 서 있을 때의 2~3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딱딱한 바닥에 앉을수록,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질수록 허리 부담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요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허리를 벽에 기대서 앉거나 한쪽 무릎을 세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꼿꼿한 자세로 쉴거지를 하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틈틈이 몸을 좌우로 움직여주고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 이 피로도를 줄여야 한다.

◆운전석 등받이는 100~110도

긴 운전으로 무리가 가거나 통증을 느끼기 쉬운 부위는 어깨와 허리다.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목과 어깨 주위의 근육이 수축하며 굳어진다.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과 통증이 심해진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을 경우 발생하는 요통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어깨,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간단한 체조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시트에 엉덩이와 등이 밀착되게 앉고 등받이의 각도는 100~110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핸들과 몸의 거리는 손으로 3시와 9시 방향으로 핸들을 잡은 후 한쪽 손을 다른 손 위에 갖다 놓았을 때 한쪽 어깨가 등받이에서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적당하다.

최기범 바른세상병원 원장은 "설날 연휴 후 허리나 무릎, 어깨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홍재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건강검진엔 '4가지'가 있다

알아두면 좋은 건보공단 검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은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김종형 청상국제병원 내과 과장은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총 4가지 건강검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2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올해는 지역 가입자 중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다.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상승하는 만 40세와 낙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만 66세다. 만 40세는 암검진, 간염검사를 받게 되고 만 66세에게는 암검진, 골밀도 검사(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이 추가된다.

'암검진'의 경우 위암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간경변증 환자나 간염바이러스 양성인자, 만성간질환자가 대상이 되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 40세 이상 여성, 만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강검진의 비용은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암검진은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공단 90%, 본인 10% 부담이다. /장혜진기자 [illegible]

영화 '범죄와의 전쟁' 용의자, 드라마 '응답하라 1994'(왼쪽부터)에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김성균.

"순수남 삼천포 출연 제의 첨엔 당황"

'응답하라 1994'서 반전매력으로 스타덤 김성균

배우 김성균(34)이 단 한편의 드라마 출연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맞았다. 바로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다.

그는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으로 데뷔해 출연작마다 비열한 조폭과 잔인한 살인마 그리고 공기 어린 냉혈한으로 분해 극의 긴장감을 이끌어내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 때문에 '악역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그러나 '응사'를 통해 반전 매력을 선보이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 '응사' 김성균 재발견

그는 '응사' 출연 전부터 영화 제작자나 감독들로부터 주목받았던 배우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계성지렴 등장해 '박수건달' '이웃사람'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 등 다양한 영화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

2012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데뷔
조폭·살인마 등 악역 전문 꼬리표
이번 작품 통해 180도 이미지 변신

탄탄한 연기 내공+개성만점 얼굴
충무로에선 믿고 캐스팅하는 배우
실제 성격은 착하고 소심한 편이죠

오랜기간 연극 무대에서 쌓은 탄탄한 연기력과 개성 있는 마스크가 어우러져 단기간에 충무로가 믿고 캐스팅하는 배우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에게 '악역 배우'로 각인돼 왔다.

"깡패나 살인범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영화에서) 나의 길은 악역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응사'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당황스러웠어요. 제 모습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 걱정도 됐죠. 방영 전까지 걱정 많이 했는데 1회 끝나고 보니 다행히 악플은 없더라구요."(웃음)

◆ 스타 NO! 성격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건 스타의 숙명이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소박한 하루를 꿈꾸는 보통 사람이다. 그는 "착하고 소심한 편이다. '응사' 전 생활이 오히려 나에게 맞았다. 마트 가서 편안하게 장보고 지방 촬영중에는 숙소에서 친한 사람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생활에 만족했다"라며 "'응사'를 통해 얻은 관심은 배우로서 매우 감사하지만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실제 그는 중·고교 시절 라디오를 즐겨듣고 연극반 활동 등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연예인이라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이같은 성격은 자녀 교육철학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재 결혼 5년차로 6살과 3살 두 자녀를 둔 그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 나이에 맞는 정서를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누구의 아들이다가 아닌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 차기작 SF영화?

'응사'를 통해 180도 반전매력을 선보이며 '김성균의 재발견'이란 호평이 쏟아졌다. 덕분에 이전보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부터 출연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전엔 스릴러나 액션 수사물 등 다소 과격하고 거친 역할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코믹, 멜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들어오고 있다.

평소 미국와 SF영화를 즐겨 본다는 그는 "어떤 작품을 차기작으로 선택해야할 지 고심중이다. 대중의 기대감이 있는 만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며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상공기자 yuw@metroseoul.co.kr
사진, 김상균(쇼박스)(드라마)제공 /디자인 박은지

1%가 묻고 99%가 상상한다!

매주 |수| 저녁 6시 50분 tvN 방송 / 1월 29일 첫방송

1화 | MC 서경석

박유천 일본팬 1000명과 특별한 시간…김재중 콘서트 1만1000석 매진

JYJ 솔로파워 놀라워라

3인조 그룹 JYJ의 멤버들이 주말 동안 각기 다른 무대를 열고 막강한 솔로 파워를 자랑했다.

박유천은 25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팬미팅을 열고 일본 팬들과 특별한 새해 맞이 이벤트를 즐겼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단일 행사로 1000명이 입국한 것은 이례적이다. 드라마와 영화 준비로 일본을 찾을 수 없어 마련된 팬미팅이라 더욱 관심이 뜨거웠다"고 밝혔다.

김동률의 '오래된 노래'를 부르며 팬미팅의 문을 연 박유천(사진 왼쪽)은 데뷔 10주년을 기념한 케이크 커팅식, 대화의 시간 등으로 200분간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공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이 된 것 같다"며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돌아보고 올해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말의 해를 기념해 직접 그린 말 그림을 추첨을 통해 팬에게 선물했다.

박유천은 자작곡 '그녀와 봄을 걷는다'를 열창하고 1000명의 일본 팬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으며 감동을 안겼다. 그는 영화 '해무' 촬영에 한창이며 다음달 말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의 주연으로 안방에 나선다.

김재중(오른쪽)은 같은날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아시아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서울 공연을 개최했다. 3개월간 진행한 솔로 앨범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 그는 생일(1월 26일)을 기념해 라이브 공연과 팬미팅을 결합한 형식으로 팬들과 만났다. 25~26일 이틀간 진행되는 공연 티켓 1만1000석이 매진됐다.

김재중은 솔로 앨범 수록곡 13곡을 불렀고 다양한 게임과 토크 등으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또 다른 멤버인 김준수는 뮤지컬 '디셈버' 공연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별그대' 뜨니 조연도 뜨네

전지현 남동생 안재현-'리틀 전지현' 김현수 등 눈도장

시청률 25%를 돌파한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이름이 생소 했던 조연 배우들 까지 덩달아 뜨고 있다.

그중 천송이(전지현)의 남동생 천윤재 역으로 나오는 안재현(사진)에게 시청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모델 출신인 그는 드라마 데뷔작인 이 작품에서 훤칠한 키와 매력적인 마스크로 여성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출연 직후 영화 '패션왕'에 주원의 라이벌로 발탁돼 스크린에도 데뷔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 대중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는 중이다.

천송이의 아역으로 나왔던 김현수도 이번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어 김유정-김소현 등에 이어 또 다른 아역스타 탄생을 예고했다. 전지현을 쏙 빼닮은 외모와 분위기로 '리틀 전지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5일 방송된 KBS2 설특집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별친구'와 15일 개봉한 영화 '살인자'에도 출연하는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방영 초반 천송이의 매니저로 나왔던 김강현 역시 '별그대'를 통해 데뷔 14년 만에 뒤늦게 주목받는 중이다. 출연 분량은 적지만 전지현을 '천송이 누나'라고 부르며 챙겨주는 귀여운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호감을 샀다.

/탁진현기자

헬멧 벗고 족두리 쓴 크레용팝 걸그룹 크레용팝이 헬멧 대신 깜찍한 족두리를 머리에 올리고 새해 한복 인사를 전했다. 소속사가 공개한 화보와 유튜브 영상에서 천진난만한 자세를 취한 이들은 "지난해 처음 많은 사랑을 주셔서 크레용팝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팬들에게 세배를 올렸다. 크레용팝은 가수 김장훈과 함께 '대한민국 소방관 프로젝트' 준비에 한창이며 중국 후난TV 대보름 특집방송 '원소콘서트'에 한국 가수로는 두 번째로 공식 초청돼 다음달 15일 중국에서 촬영을 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

"김진호, 휘성 보다 더 휘성같은 복소리"

'히든싱어2' 최종우승

JTBC '히든싱어 2' 왕중왕전 편에서 휘성 모창능력자로 출연한 김진호(사진)가 최종 우승 했다.

그는 생방송으로 꾸며진 25일 왕중왕전 파이널 무대에서 '울산공 임창정' 조현민, '논산 가는 조성모' 임성현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해 상금 2000만원을 차지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진호는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를 열창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후 사전 온라인 투표(20%)와 생방송 도중 대국민 문자 투표(80%)를 합산한 결과 김진호가 문자 투표 총 86만4963표 중 36만9374표를 받아 42.7%의 득표율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진호는 "어릴 적 우상이었던 휘성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내 노래를 좋아해주고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줘서 감사드린다"며 "무슨 일을 하며 살지 모르지만 이 기억을 발판 삼아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희망 삼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회는 평균시청률 9.1%(닐슨 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광고제외 기준)로 프로그램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 수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중 가장 높은 기록이기도 하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4%까지 치솟았다. /탁진현기자

송지효·최진혁 코믹 열연…'응급남녀' 히트예감

24일 첫 방송된 tvN '응급남녀'(사진)가 전작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바통을 순조롭게 이어받았다.

24~25일 방영된 1화와 2화는 6년 전에 이혼했던 원수 같은 부부 진희(송지효)와 창민(최진혁)이 병원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다시 만나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잔뜩기 한쪽 내는 창민 때문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독주를 마셔 만취하고, 창민의 얼굴에 콩자의 오줌을 끼얹고 선거운격을 가하는 등 코믹한 상황이 연지됐다.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으로 예능 이미지가 강한 송지효와 MBC '구가의 서'에서 진지한 연기를 펼쳤던 최진혁이 코믹한 캐릭터로 변신해 시선을 끌었다.

시청률 역시 '응사'의 행보와 비슷해 히트를 예고 했다. 1화가 '응사'의 1화(2.53%-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 기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2.4%를 기록하며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화는 전날보다 0.3%포인트 오른 2.7%를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3.8%까지 치솟았다.

연령별로는 여성 10~40대, 남성 10대, 30~40대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 연령층으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과장이 지나치고 산만하다" "주연배우의 호흡이 어색하다"는 등 비판하는 의견도 일부 눈에 띄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영화 '조선미녀삼총사'의 강예원·하지원·손가인.

액션·코믹·멜로 '3박자'

film review

권보스 기자 eonh@ls.metroseoul.co.kr

■조선미녀삼총사

조선 여자 현상금 사냥꾼 소재 하지원 연기변신… CG 어색

사람들은 '계집'이라는 단어에 대해 지금과 같은 여성 리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아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당연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9일 개봉될 영화 '조선미녀삼총사'는 영웅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리며 '계집'에 수긍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선시대를 바라보던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영화는 현상금 사냥꾼인 진옥(하지원)·홍단(강예원)·가비(손가인)가 조선의 존폐를 결정짓는 십자경을 찾아달라는 왕의 밀명을 받고 모험에 나서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미녀삼총사의 통쾌한 활약과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진옥의 모습은 물론 이들의 조력자 무명(고창석)·송포졸(송새벽)의 모습과 진옥과 사헌(주상욱)의 가슴 시린 로맨스까지 재치와 액션을 조화해 그려낸다.

관객들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복잡하게 머리를 쓸 필요가 없고 화면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된다. 특히 만화처럼 화면을 분할하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극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박제현 감독의 말처럼 만화 특유의 자유로움은 느끼기에 충분하다.

현재 출연 중인 MBC '기황후'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통해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액션 여배우로 인정받은 하지원은 이번에는 요요를 이용해 또 다른 볼거리의 액션을 선사한다. 또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 줬던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위트 있는 코믹연기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주연급으로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디딘 손가인은 특유의 시크한 매력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강예원의 천방지축 연기, 고창석·송새벽의 능글맞은 코믹 연기도 하나의 볼거리다.

반면 어색한 컴퓨터그래픽(CG)과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내용, 무명이 깡통로봇 같은 의상을 착용하고 나와 서플넌스를 주는 억지 설정 등은 아쉬움을 남긴다. 제작진이 공을 들였다는 백란도 세트도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실망감을 준다. 또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미녀삼총사의 활약보다 진옥의 복수가 부각되면서 결말도 예상가능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설연휴에 개봉한다는 점이다. 스토리를 중요시하기보다 하지원의 액션을 보고 싶은 관객이라면 가볍게 볼 만한 작품으로 적당하다. 설날 극장가를 통쾌하게 사냥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12세 관람가

"'변호인' 신기록 도전은 지금부터…"

전국에 이색광고 화제

국내 개봉 영화 중 역대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이 이색 광고로 전국에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변호인' 측은 '2014년 첫 1000만 관객 돌파!'라는 제목에 '아바타'보다 빠른 흥행 속도로 함께 달려와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호인' 한국영화의 신기록을 향한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문구와 출연진들의 사진을 담고 전국에 광고를 게재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부산·대전·대구·광주의 KTX 역사, 제주공항 등에 광고가 걸리며 각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변호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색 광고를 보고 인증샷을 남기는 관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색다른 재미를 전하고 있다.

정식 개봉 3일 만에 100만, 5일 만에 200만, 7일 만에 300만, 10일 만에 400만, 12일 만에 500만, 14일 만에 600만, 17일 만에 700만, 19일 만에 800만, 25일 만에 900만,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달성한 '변호인'은 25일까지 1056만8150명을 동원하며 새 기록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w@

하루 50만… '겨울왕국' 1위

개봉 10일만에 250만 돌파

디즈니 뮤지컬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사진)이 겨울방학 특수를 맞아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전날 하루 만에 무려 50만7039명을 불러모으며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이날까지 누적 관객은 240만2847명으로 개봉 10일 만에 250만 관객을 넘어섰다.

26일 오전 기준으로 실시간 예매 점유율도 59%를 웃돌아 주말 만에 3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역대 흥행 1위 애니메이션인 '쿵푸팬더 2'(506만 명)와 2위 '쿵푸팬더'(465만 명)의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애니메이션은 잃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 유일한 힘을 가진 자매 엘사와 안나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앞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바 있다.

한편 22일 동시 개봉된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34만2167명·누적관객 83만391명), '피끓는 청춘'(26만2820명·누적관객 69만7978명), '남자가 사랑할 때'(17만6637명·누적관객 46만5906명)가 2~4위를 차지했다.

/박견혜기자 jeskk427@

'설국열차' 베를린영화제 간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사진)가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다음달 6~16일)에 공식 초청됐다.

배급사 CJ E&M은 "'설국열차'가 다음달 7~8일 이틀간 포럼 부문에서 특별 상영된다. 월드프리미어상영이 아닌 작품을 초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프리미어 상영 조건이 엄격한 베를린영화제에서 '설국열차'를 초청한 것은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등을 통해 알려진 봉준호 감독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프로젝트인 '설국열차'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이다"고 밝혔다.

봉 감독과 제작자인 박찬욱 감독, 송강호·고아성·틸다 스윈튼·존 허트 등 출연진은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프로모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설국열차'와 함께 정윤석 감독의 '논픽션 다이어리', 박경근 감독의 '철의 꿈'도 포럼 부문에 초청됐다. /유순호기자

북미 흥행 '넛잡' 속편 제작

한국영화로 북미 박스오피스 최고 기록을 세운 '넛잡: 땅콩도둑들'(사진)이 속편 제작을 확정지었다.

제작사 레드로버는 북미 흥행에 힘입어 2016년 1월 15일 '넛잡 2'를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영화 상영이 진행되는 중간에 배급사가 후속편의 배급을 선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넛잡'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개봉해 6일 만에 2730만 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렸다. 이는 북미 지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고 흥행성적을 거둔 '디워'(2007년)의 1097만 달러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북미 배급을 담당한 오픈로드는 "레드로버 등과 다시 뭉쳐 '넛잡 2'를 선보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순제작비만 400억원이 투입된 '넛잡'은 겨울을 나고자 도시의 땅콩가게 습격에 나선 다람쥐 설리와 친구들의 모험을 담았다.

/유순호기자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첫골을 성공시킨 김신욱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경기 연속골 '진격의 거인'

김신욱, 러시아전 이어 코스타리카전 결승골… 홍명보호 원톱 사실상 '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첫 원정 8강 진출을 노리는 축구 대표팀이 새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장신 공격수 김신욱(26·울산)이 축구 대표팀 새해 첫 골의 주인공이 됐다.

김신욱은 전반 10분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 19일 러시아와의 친선경기에 이어 A매치 두 경기 연속 골로 물오른 감각을 보여줬다.

원톱 공격수로 나선 김신욱은 오른쪽 측면에서 이용의 패스를 받은 고요한의 슛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넘어지면서 오른발 슛을 날려 골로 연결시켰다. 김신욱은 박주영(29·아스날)의 부재로 원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호 출범 이후 A매치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선수는 김신욱과 지난해 9월 아이티·크로아티아전에서 득점한 이근호뿐이다.

김신욱은 "지난 스위스·러시아전과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정해준 역할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선수들이 다 함께 힘들어 준비한 경기에서 혼자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돼 미안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골을 더 넣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며 "다음 경기부터는 기회마다 골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파가 빠진 가운데 국내파 K리그 선수와 일본 1리그 선수만으로 전지훈련에 나선 홍명보호는 일방적 공세로 승리를 챙겨 자신감을 얻었다. 코스타리카는 브라질 월드컵 북중미 예선에서 최소 실점으로 본선행을 확정한 강팀이다.

◆30일 멕시코와 두번째 평가전

한국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알라모돔에서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른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바브링카 호주오픈 우승

스타니슬라스 바브링카(8위·스위스·사진)가 생애 처음 메이저대회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바브링카는 26일 호주 멜버른의 파크 테니스장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라파엘 나달(1위·스페인)을 3-1(6-3 6-2 3-6 6-3)로 꺾었다. 프로 데뷔 12년 만의 메이저 우승과 함께 세계 최강 나달을 꺾었다는 점에서 바브링카의 기쁨은 더욱 컸다.

바브링카는 그동안 나달과 12번 대결해 한 번도 세트를 따내지 못하는 절대 열세를 보여왔다. 이날 우승으로 세계랭킹은 3위까지 치솟았다.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6위)를 제치고 처음으로 스위스 선수 가운데 최고 랭킹을 차지하게 됐다.

바브링카는 이번 대회에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 토마시 베르디흐(7위·체코) 등 강적을 연이어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유순호기자 suno@

오승환 신무기 '부처 커브'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이 일본 첫 훈련에서 신무기인 '부처 커브'를 선보여 취재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26일 "오승환이 시속 90km대 슬로 커브를 던졌다. 한국에서 시속 157km 직구와 슬라이더로 승부해 온 마무리 투수가 새로운 구종을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시작하는 팀의 스프링캠프에 조기 합류한 오승환은 25일 오키나와 기노자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오승환이 소수의 취재진과 관계자만 있는 훈련장에서 슬로 커브를 던졌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의 별명인 돌부처를 따올려 '부처 커브'라고 이름붙였다.

오승환은 "불펜피칭에 돌입하기 전에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 변화구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오승환은 "포수가 사인을 낼 경우에만 커브를 던지겠다. 직구와 슬라이더를 잘 가다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순호기자

지동원 분데스리가 복귀 2분 만에 환상골

'미래의 소속팀' 도르트문트전 후반 교체투입 되자마자 골맛

대표팀 전지훈련과 평가전에 제외된 유럽파 선수들이 일제히 활발한 몸놀림을 보이며 브라질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동원(23·아우크스부르크)은 독일 무대 복귀를 자축하는 골을 터뜨렸다. 그는 26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프로축구 2013~2014시즌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로 뒤진 후반 27분 동점골을 넣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동원의 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후반 25분 투입된 지동원은 그라운드를 밟은 지 2분 만에 골을 터뜨렸다. 지난 시즌 겨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돼 팀의 1부 리그 잔류를 견인했다. 당시 17경기에서 5골을 터뜨렸다.

올해 겨울 선덜랜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다시 이적한 지동원은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이날 첫 경기에 나섰고, 시즌 1호 골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경기 후 지동원에게 평점 2점을 부여했다. 이 매체는 1~5점의 평점을 매기며 낮은 점수일수록 좋은 평가에 해당한다. 평점 2점은 양팀 선수 통틀어 가장 좋은 평점이다. 분데스리가 역시 지동원을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지동원은 올 시즌이 끝난 후 도르트문트로 이적한다.

대표팀 간판 골잡이 손흥민(22·레버쿠젠)은 후반기 첫 경기에 선발로 나서 82분을 소화했다. 류승우(21·레버쿠젠)는 손흥민의 백업요원으로서 독일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가운데)이 26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프로축구 2013~2014시즌 18라운드 경기에서 동점 헤딩골을 터뜨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대표팀의 왼쪽 풀백 박주호(27·마인츠)는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역전골을 도우며 팀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마인츠의 구자철(25)은 후반 14분에 교체 투입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6일

팀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34	18	23	21	96
KT	17	18	22	14	68
KCC	21	18	15	28	84
삼성	14	16	20	25	78
SK	18	14	23	18	73
LG	13	23	18	18	72
신한은행	17	23	15	23	78
국민은행	22	18	20	27	87

프로배구 전적 26일

팀			팀
삼성화재	3	1	우리카드
도로공사	3	1	GS칼텍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필터클리닝을 무료로 받으세요!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은 10개월(혹은 10만km)마다 정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출력 및 연비저하 등을 유발하고 저감장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장치의 보증기간(3년 혹은 16만km) 경과유무에 상관없이 필터클리닝 비용(연 1회)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자동차

| 신청방법 | 장치제작사 및 지정된 클리닝센터에 전화예약후 방문

| 제작사별 클리닝 안내 전화번호 |

- 엠앤엠산업 02-2121-7681
- HK-MnS(구 현대모비스)1577-7278
- 일진전기 1588-7558
- 이엔드디 1644-2402
- 크린어스 1544-1198
- 후지노테크 031-654-2031
- 세라컴 02-744-1777
- 에코닉스 1666-3243

* 관련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031-481-1378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02-2133-3651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552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illegible]-42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